

부록: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09

I. 거시경제지표

항 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중미 8국	중남미전체
GDP	% (연 증가율)	0.9	-0.2	-1.4	0.9	0.4	-3.2	-6.5	-0.4	-1.8
1인당 GDP		-0.1	-1.6	-2.4	-0.3	-1.1	-4.7	-7.4	-2.0	-3.3
소비자물가 상승률		6.2	4.9	2.3	2.9	4.2	28.6	5.3	2.8	6.5
GDP	십억 달러	307	1,571	164	127	231	326	875	181	4,161
GDP (구매력기준)		747	1,949	244	249	322	352	1,476	341	6,167
1인당 GDP	달러	7,625	7,932	9,690	4,342	5,051	11,336	7,987	3,969	7,096
1인당 GDP (구매력기준)		18,540	9,839	14,400	8,540	7,061	12,231	13,462	7,614	10,515
실업률	%	8.7	8.1	9.6	7.9	12.9	7.9	5.5	8.1	8.2
총외채 (GDP 대비)		37.5	17.8	45.9	26.4	23.2	15.5	20.8	37.8	31.8
수출	십억 달러	55.7	153.0	54.1	26.9	34.0	57.6	229.7	40	758.5
수입		37.1	127.6	39.7	21.1	31.4	39.1	234.4	63	684.5
무역수지		18.6	25.4	14.4	5.8	2.6	18.6	-4.7	-23	74.0
경상수지		11.3	-24.3	4.2	1.3	-5.1	8.1	-5.3	-6	-13.1
외환보유고		48.0	238.5	25.3	33.2	25.0	36.8	99.9	22.0	552.9
순FDI 유입		4.9	25.9	12.7	4.8	7.2	-3.1	11.4	7.3	77.3
재정수지	%(GDP 대비)	-0.6	-3.3	-4.7	-2.1	-3.8	-6.5	-2.8	-2.2	-3.4
정부부채		48.6	60.0	6.1	24.8	45.8	18.0	39.1	45.4	38.7

주1: 중미 8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주2: 2009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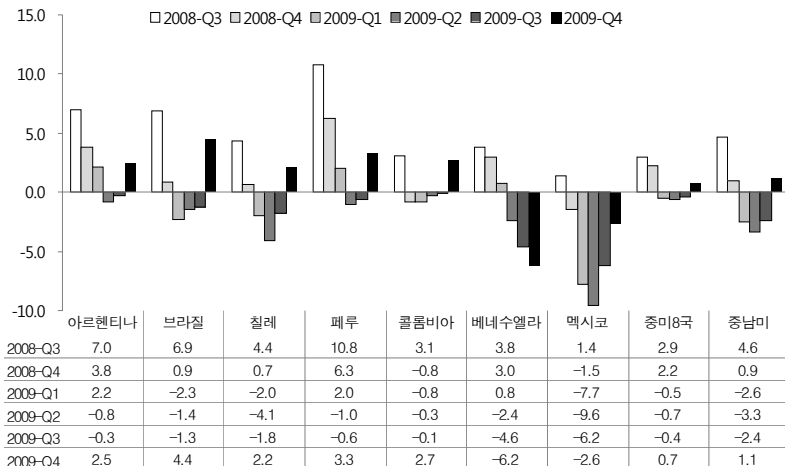
자료: 총외채, 외환보유고, 정부부채는 EIU, 순FDI유입은 ECLAC,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II. 실물경제지표

1. GDP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부분의 중남미 경제는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
 - 국별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2008년 4분기부터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빨리 경기침체 직면
 -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2009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2009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 탈피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2009년 4분기까지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전체적으로 중남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국별로는 멕시코가 -6.5% 경제성장률로 가장 큰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3.2%), 칠레(-1.4%), 중미 8국(-0.4%), 브라질(-0.2%) 등이 이음.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8.7	6.8	0.9
브라질	6.1	5.1	-0.2
칠레	4.7	3.5	-1.4
페루	8.9	9.8	0.9
콜롬비아	7.5	2.4	0.4
베네수엘라	8.2	4.8	-3.2
멕시코	3.3	1.5	-6.5
중미8국	6.2	4.2	-0.4
중남미	5.5	4.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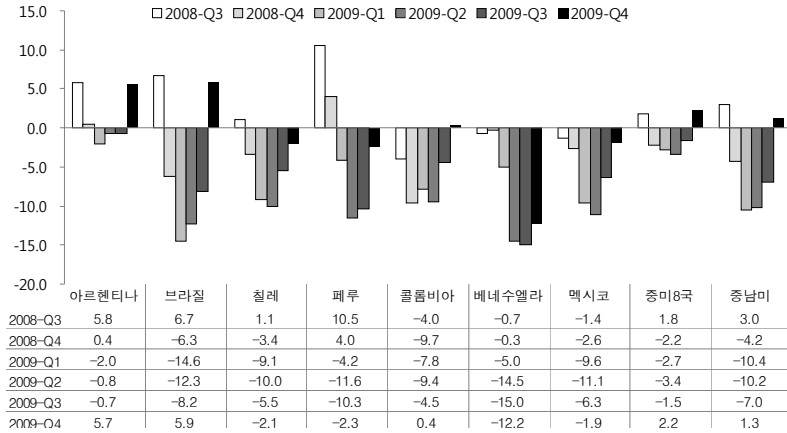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2. 산업생산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남미지역의 산업생산은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국별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업생산이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빨리 침체에 직면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산업생산은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늦은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 ☐ 중남미지역의 산업생산은 2009년 4분기부터 성장세로 반전
 - 그러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산업생산은 2009년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주요국의 분기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전체적으로 중남미지역 산업생산은 큰 폭의 감소세(-6.8%) 기록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11.9%), 브라질(-7.4%), 멕시코(-7.3%), 페루(-7.2%)가 중남미 평균보다 심각한 산업생산 감소 기록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유일하게 미미하나마 산업생산 증가세를 기록

주요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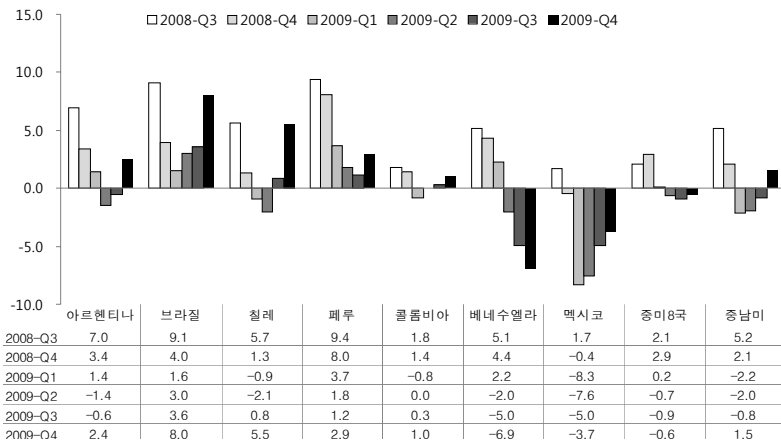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7.5	4.7	0.6
브라질	6.0	3.1	-7.4
칠레	4.1	0.2	-6.7
페루	11.1	9.1	-7.2
콜롬비아	10.9	-3.1	-5.4
베네수엘라	6.9	1.4	-11.9
멕시코	2.0	-0.6	-7.3
중미8국	3.6	0.9	-1.5
중남미	5.2	1.8	-6.8

자료: Global Insight

3. 소비

- 중남미지역의 소비는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
 - 국별로는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 2009년 기간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소비 침체를 겪은데 반해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
- 2009년 4분기부터 중남미지역의 소비는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
 - 그러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중미국가들은 2009년 4분기까지도 소비 감소세를 탈피하지 못함.

주요국의 분기별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중남미지역의 소비는 전년비 0.2% 감소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전년비 6.1% 하락), 베네수엘라(-3.2%), 중미국가들(-0.4%) 순으로 소비 하락세가 현저했음.
 - 그에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대부분 남미국가들에서 소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였음. 이 같은 소비 증가세는 남미 각국이 실시한 소비진작책이 주요한 결과로 해석됨.

주요국의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9.0	6.5	0.5
브라질	6.1	7.0	4.1
칠레	7.0	4.6	0.8
페루	8.3	8.8	2.6
콜롬비아	7.6	2.5	0.1
베네수엘라	18.7	7.1	-3.2
멕시코	4.0	1.9	-6.1
중미8국	6.4	4.6	-0.4
중남미	6.3	5.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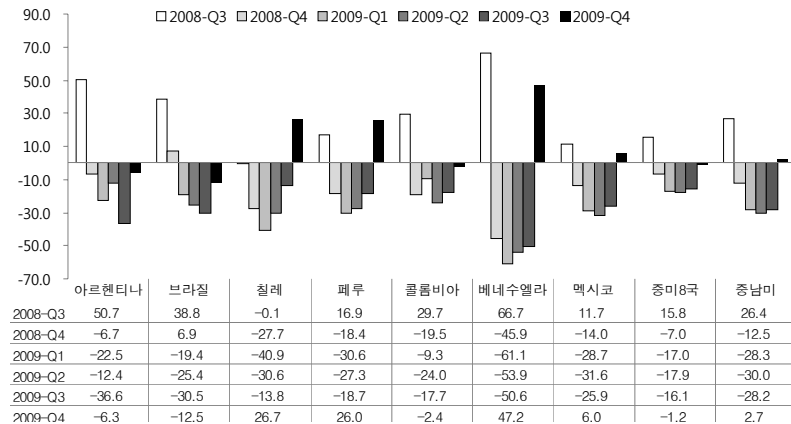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4. 수출

-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중남미지역의 수출은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 국별로는 칠레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2008년 3분기부터 수출 감소세 기록
- 중남미지역의 수출은 2009년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
 - 그러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의 수출은 2009년 4분기까지도 감소세 기록

주요국의 분기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중남미지역의 수출은 전년비 21.2% 감소한 7,580억 달러에 머뭄.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세(전년비 38.3%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브라질(-22.7%), 멕시코(-21.2%), 아르헨티나(-20.4%), 칠레(-18%) 순으로 높은 감소세 기록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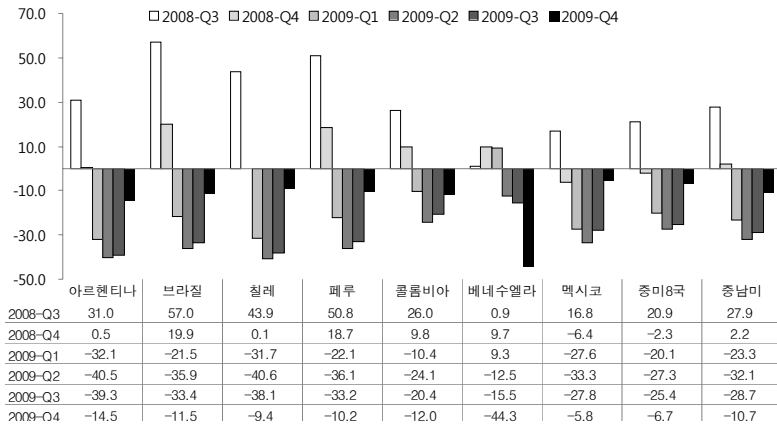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20.2	25.7	-20.4
브라질	16.6	23.2	-22.7
칠레	15.7	-3.0	-18.0
페루	17.0	13.1	-14.7
콜롬비아	21.2	26.3	-11.7
베네수엘라	5.8	34.8	-38.3
멕시코	8.9	7.2	-21.2
중미8국	13.4	6.2	-10.9
중남미	11.8	15.2	-21.2

자료: Global Insight

5. 수입

- 중남미지역의 수입은 2008년 4분기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 1분기부터 두 자리 수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
- 국별로는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의 수입이 2008년 4분기부터 감소세 기록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가장 늦은 2009년 2분기부터 수입 감소세를 나타냄.
- 수출과 달리 중남미지역의 수입은 2009년 4분기까지도 지속적인 감소세 기록

주요국의 분기별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중남미 전체 수입은 전년비 24% 감소한 6,850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전년비 31.9% 감소), 칠레(-31%), 브라질(-26.3%), 페루(-26.1%), 멕시코(-24%) 순으로 수입 감소세가 현저했음.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30.6	28.4	-31.9
브라질	32.0	43.5	-26.3
칠레	22.5	31.0	-31.0
페루	32.0	45.1	-26.1
콜롬비아	25.5	20.6	-16.2
베네수엘라	37.0	8.0	-20.8
멕시코	10.3	9.5	-24.0
중미8국	15.7	14.2	-20.3
중남미	18.2	20.5	-24.0

자료: Global Insight

6.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 감소세를 능가하는 수입 감소세로 2009년 중남미지역의 무역수지흑

자는 2008년보다 120억 달러 증가한 740억 달러를 기록

- 국별로는 브라질이 250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190억 달러), 아르헨티나(190억 달러), 칠레(140억 달러), 페루(60억 달러) 등이 이음.
- 그에 반해 멕시코와 중미 8개국들은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규모는 2008년보다 크게 감소했음.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56	70	56	42	55	37	13	15	19
브라질	161	198	153	121	173	128	40	25	25
칠레	68	66	54	44	57	40	24	8	14
페루	28	32	27	20	29	21	8	3	6
콜롬비아	30	39	34	31	37	31	-1	1	3
베네수엘라	69	93	58	46	49	39	24	44	19
멕시코	272	291	230	282	309	234	-10	-17	-5
중미8국	40	43	39	69	81	62	-29	-37	-23
중남미	836	962	758	747	900	685	88	62	74

자료: Global Insight

□ 2009년 중남미지역의 경상수지는 무역흑자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었음.

- 국별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반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경상수지 흑자 기록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2.7	2.2	3.7
브라질	0.1	-1.7	-1.5
칠레	4.6	-1.4	2.6
콜롬비아	-2.9	-2.8	-2.2
멕시코	-0.8	-1.5	-0.6
페루	1.1	-3.3	1.0
베네수엘라	8.1	11.4	2.5
중남미	0.4	-0.6	-0.3

자료: Global Insight

7. 재정수지

□ 중남미 각국이 경기침체 억제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2009년 중남미지역의 재정수지는 2008년 대비 크게 악화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6.5%), 칠레(-4.7%), 콜롬비아(-3.8%)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은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었음.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대비)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1.2	1.4	-0.6
브라질	-2.7	-1.9	-3.3
칠레	9.9	6.2	-4.7
콜롬비아	-2.8	-1.8	-3.8
멕시코	0.0	-0.6	-2.8
페루	3.1	2.1	-2.1
베네수엘라	-2.6	-2.4	-6.5
중남미	-1.0	-0.9	-3.4

자료: Global Insight

III. 금융 · 외환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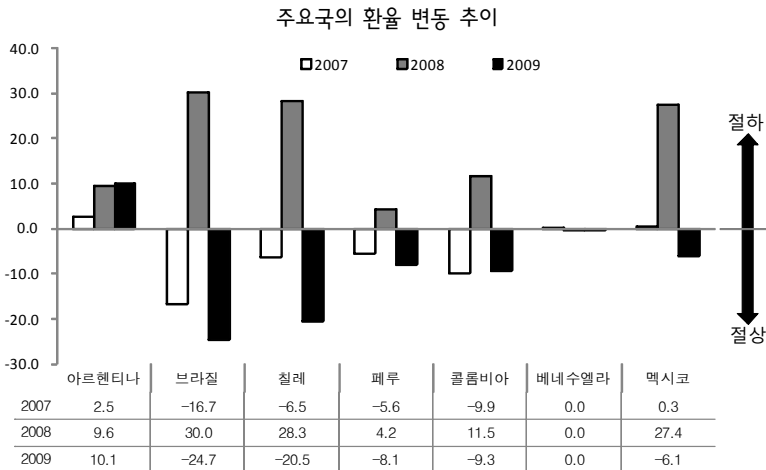
1. 환율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2008년에 큰 폭의 환율 인상을 경험함.

- 국별로는 브라질(30.0%), 칠레(28.3%), 멕시코(27.4%), 콜롬비아(11.5%) 순으로 높은 환율 인상을 기록

□ 2009년 1분기 이후 중남미 경제가 신속한 회복세를 보이며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은 인하세로 반전, 2009년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 수준으로 복귀함.

- 국별로는 브라질(-24.7%), 칠레(-20.5%), 콜롬비아(-9.3%) 순으로 높은 환율 하락세를 기록함.



자료: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의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달러대비, 연말 기준)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3.1	3.2	3.5	3.8
브라질	2.1	1.8	2.3	1.7
칠레	531.8	497.5	638.0	507.0
페루	3.2	3.0	3.1	2.9
콜롬비아	2237.5	2016.5	2249.3	2039.5
베네수엘라	2.1	2.1	2.1	2.1
멕시코	10.9	10.9	13.9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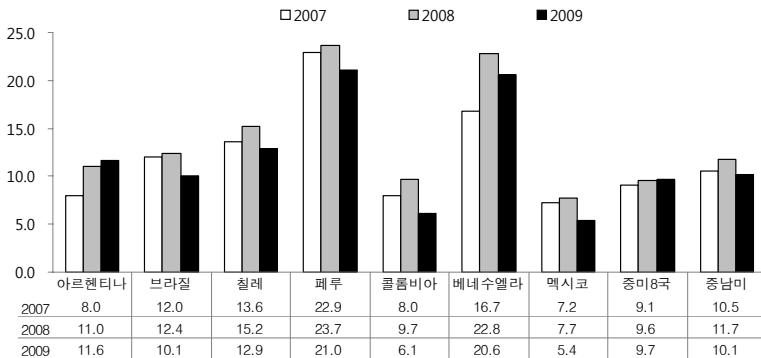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남미 각국이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금리는 2008년 11.7%에서 2009년 10.1%로 인하됨.
- 그에 반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아르헨티나와 중미 국가들에서 금리는 소폭 증가함.

주요국의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3. 소비자물가상승률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남미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7.8%에서 2009년 6.5%로 하락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은 중미국가들(11.1% => 2.8%), 칠레(8.9% => 2.3%)에서 가장 두드러졌음.
- 그에 반해 멕시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5.1%에서 2009년 5.3%로 소폭 증가함.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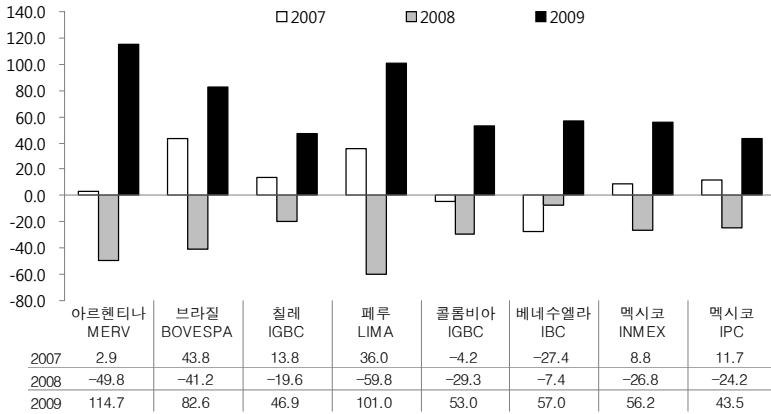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8.8	8.6	6.2
브라질	3.6	5.7	4.9
칠레	4.4	8.9	2.3
페루	1.8	5.8	2.9
콜롬비아	5.5	7.0	4.2
베네수엘라	18.7	31.5	28.6
멕시코	4.0	5.1	5.3
중미8국	6.4	11.1	2.8
중남미	5.3	7.8	6.5

자료: Global Insight

4. 주가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중남미 각국의 주가는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
- 국별로는 페루(-59.8%), 아르헨티나(-49.8%), 브라질(41.2%), 콜롬비아(-29.3%), 멕시코(-26.8%) 순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중남미 각국의 주가는 대부분 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음.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114.7%), 페루(101%), 브라질(82.6%), 베네수엘라(57%), 멕시코(56.2%)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주요국의 주가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국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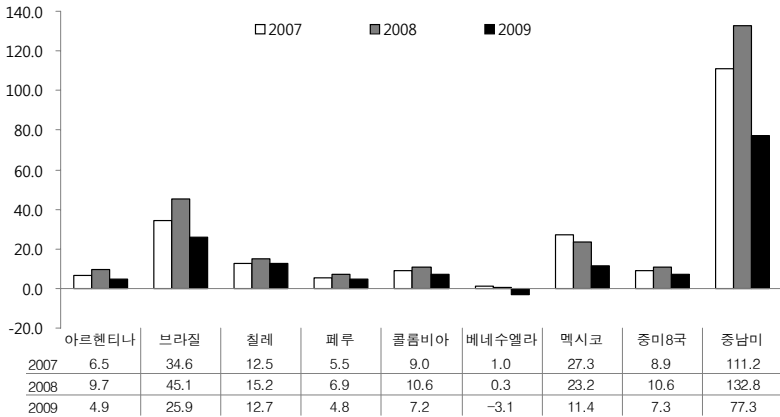
국 가	지 수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MERV	MERV	2,090	2,152	1,080	2,318
브라질 BOVESPA	BOVESPA	44,440	63,886	37,550	68,558
칠레 IGBC	IGBC	12,374	14,076	11,324	16,631
페루 LIMA	LIMA	12,884	17,525	7,049	14,167
콜롬비아 IGBC	IGBC	11,161	10,694	7,561	11,569
베네수엘라 IBC	IBC	52,234	37,904	35,090	55,081
멕시코 INMEX	INMEX	1,533	1,668	1,222	1,908
멕시코 IPC	IPC	26,448	29,537	22,380	32,120

자료: Bloomberg

5. 외국인직접투자

-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9년에
 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전년비 41.8% 감소한 773억 달러 기록
 - 국별로는 멕시코(전년비 50.7% 감소), 아르헨티나(-49.8%), 브라질
 (-42.4%), 콜롬비아(-32%), 페루(-31.3%) 순으로 높은 감소세 기록

주요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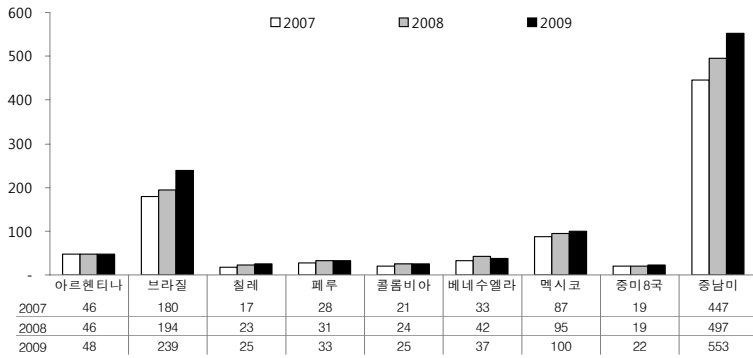


자료: ECLAC

6. 외환보유고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중남미지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외환보유고는 2008년보다 860억 달러 증가한 5,53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브라질(전년비 23% 증가), 중미 8개국(13%), 칠레(10%)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세
 (전년비 13%)를 보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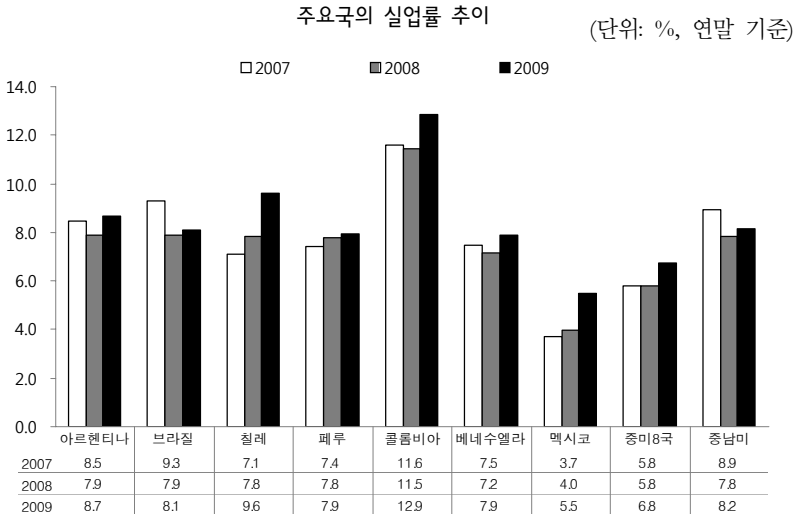


자료: EIU

IV. 기타 지표

1. 실업률

- 2009년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7.8%에서 8.2%로 증가함.
- 국별로는 콜롬비아가 12.9%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칠레(9.6%), 아르헨티나(8.7%), 브라질(8.1%), 페루(7.9%), 베네수엘라(7.9%)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Global Insight

2. 신용등급

- 2010년 6월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등급을 부여 받음.
- 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는 Moody's, S&P, Fitch 등 세 기관 모두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음.

- 콜롬비아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로부터만 투자적격 등급을 받음.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세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고 있음.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국 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아르헨티나	B3	안정	B-	안정	B-	안정
브라질	Baa3	긍정	BBB-	안정	BBB-	안정
칠레	Aa3	안정	A+	안정	A	안정
페루	Baa3	안정	BBB-	안정	BBB-	긍정
콜롬비아	Ba1	안정	BBB-	안정	BB+	안정
베네수엘라	B2	안정	BB-	안정	B+	안정
멕시코	Baa1	안정	BBB	안정	BBB	안정

자료: Moody's, S&P,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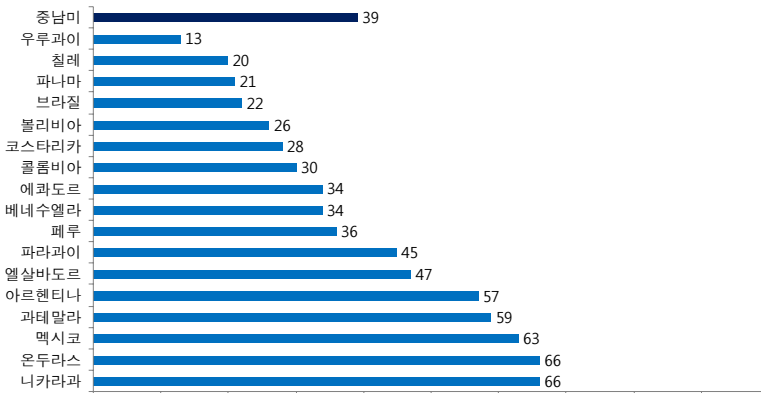
V.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1.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 중남미 국가 중 현재의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멕시코,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순으로 조사됨.
- 그에 반해 우루과이, 칠레, 파나마, 브라질, 볼리비아 등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높지 않은 상황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9년 지표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표와 심리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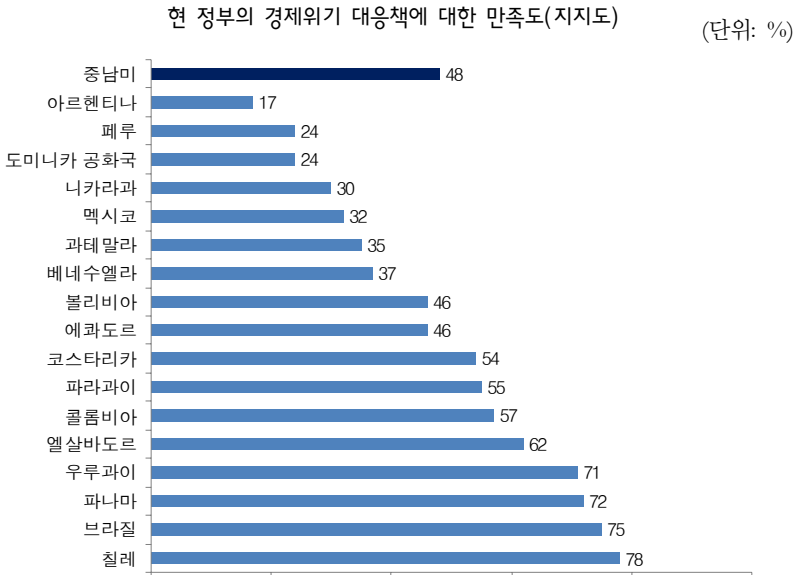
주: 2009년 현재 중남미 각국에서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한 국민(응답자)의 비중
자료: Latinobarometro 2009

2.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만족 여부

- ☐ 현 정부가 경제위기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칠레, 브라질, 파나마, 우루과이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중남미 전체적으로는 약 과반수의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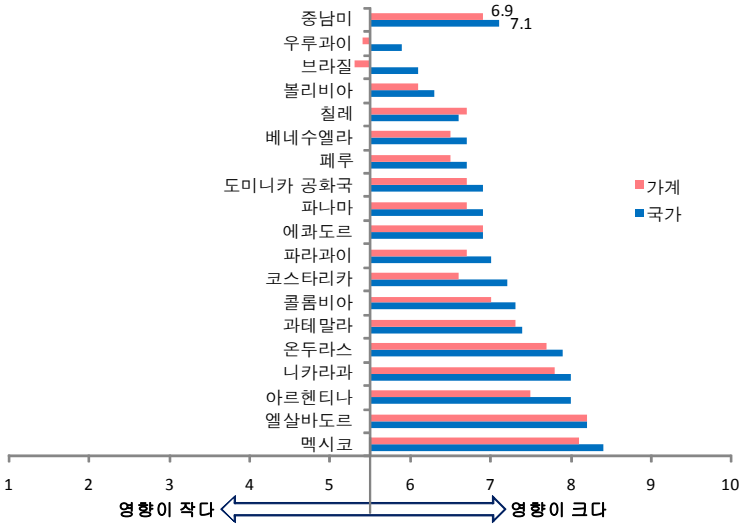


자료: Latinobarometro 2009

3. 경제위기가 각 주체에 미치는 영향

- 현재의 경제위기가 국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북중미지역 국가들이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반해 우루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 국가에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가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현 경제위기가 각 주체에 미친 영향



자료: Latinobarometro 2009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팀장 정리.